

보도시점

2024.4.12.(금) 08:30

배포

2024.4.12.(금) 08:30

영구임대 ‘임차인’ 고충,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나선다

- 국민권익위, 서울 노원구 월계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임대주택 입주·계약 갱신, 하자보수, 단지 내 시설개선 및 주거복지 등에 대한 불편을 겪는 임대주택 임차인 고충 해결을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았다.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서울 노원구 월계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영구임대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 등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하는 국민권익위의 현장 중심 고충민원 해결 서비스다.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영구임대주택 임차인이 주거 불편 등 민원을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과 협업해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해 왔다.

* 대구(‘22.7.15.), 마산(‘22.9.29.), 천안(‘23.4.19.), 포항(‘23.6.22.), 전주(‘23.9.14.) 등

- 국민권익위는 이번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 현장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세대 방문 등을 통해 직접 해결하고, 즉시 해결이 어려운 민원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관계기관 협의 등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월계2동 행정복지센터와 협업해 임대주택 상담에 더해 복지 분야 상담도 진행해 입주민들의 복지개선에도 기여한다.

- 국민권익위 조덕현 고충민원심의관은 “이번 영구임대주택 현장 상담을 통해 주거개선이 이뤄져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불편이 해결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민원현장을 찾아가 국민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주택건축민원과	책임자	과 장	박형준 (044-200-7461)
		담당자	주무관	배은경 (044-200-7469)

